連載 栽培敎室

'90 新規會員을 爲하여

약=藥 작=(芍)

學名 : Paeonia albiflora Pall
生藥名 : 芍藥 Paeoniae Radix
成分 : Paeoniflorin sucrose와 alkaloid인 Paeonine이 함유되고 安息香酸, tannin酸, 澱粉등이 함유되어 있다.
効用 : 鎭痙, 鎭痛, 緩和, 收斂作用이 있다. 筋肉의 경련, 頭痛, 복통, 赤痢, 止汗 등에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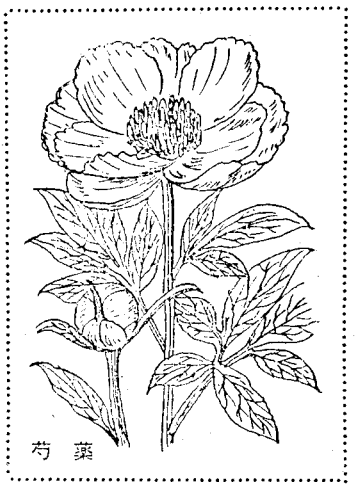
1、性 狀

東部 아시아 原産으로 여러해살이 宿根草이다. 그 品種이 대단히 많으나 꽃은 거의 붉은 색과 흰 색이며 새로이 改良된 것 중에는 노랑색도 있다. 키는 60~90㎝ 정도이며 잎은 어겨붙었고 두번 세갈레로 갈라진 잎은 달걀꼴 또는 둥근 꼴의 작은 잎이 모여 겹잎을 이루고 있다. 5월 중·하순부터 6월 사이에 꽃이 핀다. 꽃받침은 3~5조각의 달걀꼴이고 크기가 다르며 꽃잎은 5~8조각이다. 수술은 여러개 있는데 암술은 3~5개이며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고 그 속에 많은 씨가 들어 있다. 때로는 암갈색으로 말라 붙어 健實하지 못하기도 하다. 中國에서는 꽃중에서 모란을 花王이라 불러 제일로 치고 芍藥은 花相이라 하여 모란 다음의 아름다운 꽃으로 친다. 일반 園藝家들의 切花用 화초로서도 그 收益이 많다.

2、栽培法

①栽培適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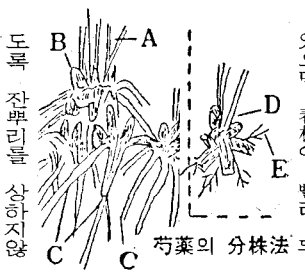
우리 나라 각지에 잘 되지만 寒冷한 지방보다 다소 따뜻한 곳에서 생육이 잘 된다. 土質은 表土가 깊고 걸며 물빠짐이 잘 되는 埴土 또는 埴壤土에 적당하다. 砂質土나 힘없는 땅에서는 잔뿌리가 많이 생기고 뿌리에 根瘤線虫의 발생이 심하다. 한편 너무 濕한 땅에서는 空氣 流通이 나빠서 뿌리의 생육이 좋지 않으며 썩거나 여러가지 病害를 입기 쉽다. 따라서 이 작물은 連作을 싫어하므로 한번 재배해서 收穫한 곳에는 적어도 2~3년간은 다른 農作物을 심을 것이다.


芍藥

②繁殖

芍藥의 採種과 종자의 發芽 전의 처리방법 등은 總論과 목단 栽培法에 따라야 할 것이다. 繁殖은 種子繁殖과 포기나누기를 한다. 種子繁殖을 하게 되면 발아시켜 育苗하는데 시일이걸리고 뿌리 발육이 늦으며 收量도 적을 뿐더러 3~5년만에 수확하게되므로 많은 노력이 들어 실용적인 방법이 못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芍藥을 分株法에 의해서번식시키고 있다.

9~10월경에 莖葉이시들면 포기를 캐어 굵은 뿌리는 눈 부분에 좀남기고 끊어서 수확하고나머지는 한 그루가 건실한 싹눈이 2~3개쯤붙여 잘 짜개어 그 斷面에 草木灰나 세레산석회를 묻혀서 심고, 될 수 있으면 着根이 빨리 되도록 잔뿌리를 상하지않게 붙일 것이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없는 날에 심을 것이며, 작업중 마르지 않게 주의하여 本圃에 定植한다.



芍藥의 分株法

이때에 種根에 잔뿌리를 많이 붙여서 심은것은 定植 후 發育이 왕성하여 3년만에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다. 씨뿌리의 한 개의 크기는 무게가 77g 정도가 적당하며 芍藥 收穫 후 토지이용상 부득이 連作을 하고자 할 때는 圃地의 消毒과 퇴비, 닭똥, 똥, 깻묵 등의 有機質肥料를 풍부하게 施用할것이며 씨뿌리도 비교적 큰것을 심는것이 유리하다.

③定 植

定植할 時期는 9월중·하순경이지만 될 수있으면 中北部 지방에서는 빨리 심는 것이 좋다. 어느지방에서든지 심는 時期가 늦어지면 모의着根이나 發育이 나빠지므로 결코 適期를 놓치지 말고 심을 것이다. 심을 밭은 全面에 잘 썩은堆肥 등을 살포하고 깊이 갈아 整地한 다음 120~150㎝의 두둑을짓고 이랑 사이 60내외, 포기 사이 45㎝ 정도의 간격으로 골을 치고 심거나 또한 같은 栽植距離에 한날씩 구덩이를파고 그 속에 잘 썩은퇴비 등을 충분히 넣고겉흙과 잘 섞은 후 모의 눈이 위로 되게 꽂꽂이 세워서 6㎝정도 흙을덮고 주위를 가볍게 밟아 준다.

栽植 거리는 地力이나 수확할 年數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77g의 씨뿌리라면 10a당 4천개까지 集約 栽培를 할 수 있는 것이다. 間作을 할 경우에는 간작할 작물의 선택에유의할 것이며, 이랑의 넓이는 90㎝정도로 하여定植후 2~3년간 農作物을 간작할 수 있지만間作物은 芍藥보다 키가작고 莖葉이 무성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년에 수확할 것이며 작물을 심을 것이다. 芍藥은 봄에도 심을 수있으나 發根에 앞서 싹이 자라게 되어 뿌리가뻗기전에 잎이 생기며 증발이 왕성해져서 着根함에 지장이 생기고 체내의 養分이 뿌리보다 地上部의莖葉 伸長에 소비되기 때문에 결국 生育이 좋지 않고 때로는 여름철에말라 죽기도 한다.

특히 4~6월 사이에는 乾燥期이므로 초심자로서 봄에 심을 때에는 썩지 않은 퇴비 등을밑거름으로 많이 넣고 물을 잘 주지 않으면 대개는 실패하기 쉽다.

10a당 種根의 所要量은 150㎏ 정도이다.

④肥培管理

정식한 늦가을에 凍害와 乾燥됨을 예방하기위하여 흙을 다소 싹 위에 북돋아 주며 퇴비나 짚 등을 덮어 주면 좋다. 봄 일찍 덮어 준것을 고랑에 긁어 모아서 태워 버리면 病虫害의豫防도 되고 칼리비료로이용된다.

봄이 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여 發育이 좋은 것은 꽃봉우리가 생긴다. 꽃봉우리가 생기는 대로 곧 따버리는 것이 좋다.

中耕 제초는 때때로할 것이나 間作物이 있을때에는 다같이 제초할 것이며 中耕시에는 뿌리가 傷하지 않도록 주의할것이다. 비료는 밑거름으로서 10a당 堆肥 1200㎏, 過石 48㎏, 깻묵 120㎏, 탁똥 200㎏ 줄 것이며, 자라는 상태를 보아 웃거름을 人糞尿 1000㎏ 정도를 2~3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기타 病虫害의 管理는 목단과 같다.

3、收穫·調製

定植한 후 발육이 잘 된 것은 3~4년만에수확할 수 있다.

收穫의 시기는 뿌리의 發育狀態, 病蟲害의 被害 및 生藥 種根등의 시세를 고려하여 적당히 할 것이다. 보통 收穫하는적기는 9월 하순경이지만 형편에 따라서 8월 하순부터 땅이 얼기 전과 다음해 봄 3월 하순까지 캘수있다.

그러나 봄에 수확하게 되면 種苗의 移植이 좋지 않아서 불합리한 점도 있다. 수확할 때에는 먼저 시들은 莖葉을 제거하고 한쪽에서부터 깊게 캐어서 포기의 흙을 잘 털고 뿌리를 種苗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낡기고 苗頭와 분리시킨 다음 뿌리를 물에 씻어 대칼로 껍질을 벗기고, 될수 있으면 빨리 햇볕에 건조한 것이 品質이 좋다. 만약 쇠붙이로 된 칼을 써서 껍질을 베끼거나 日氣가 불순해서말리는 시일이 오래되면生藥의 빛이 좋지 못하고 검붉어 變色되거나 곰팡이가 생겨 썩기쉽고 품질 가격이 떨어진다. 3~4年生으로서 포기전부를 캤을때 10a당 收穫量은 生根으로 2천~3천2백㎏ 정도이며, 調製 乾燥된 것은 1천㎏ 내외이다.

芍藥은 生藥으로서 목단보다 더 많이 쓰이는 藥材인데 아직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있음으로 國內 재배생산을 적극 장려하여야 할 유망한 藥草이다. 生藥으로서 外部가 담갈색이고 內部는 약간 담홍색이며 質은 맛이 있고 약간단맛이 있는 肥大 充實한 것이 좋다.

〈독자투고 I〉

장수비결과 식품

안양시 소장 이 봉 선

동양의학계에서는 약물을 동원일체로 삼고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매일먹는 식품은 약을 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관념 습관인식에 달려있다. 우선물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없는 선약이련만 물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마시는 사람은 드물다. 사막지대에서는 사람들만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체로 물질이 흔하면 천대받고 적으면 귀중한 취급을 받게 마련이다.

보석이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광채와 강도에 있다하지만 그 보다는 희소가치 때문인것같다. 만일 지구상에 모든돌산들이 보석으로 뒤덮여있다면 사람들은 별로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매일먹는 음식물도 그렇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먹는 식물에 대해서도 별 관심없이 먹으며어느 누가 음식물이 약이된다고 생각하며 먹으랴!

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생을 누리고 싶어한다. 그러나사람은 천수를 누릴수는 없다. 다만 식생활과 건강관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시간적 연장은 어느정도 가능하다라고 유명 생약전문가는 강조한바 있다. 어쨌든 생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영약을 찾았고 선술을 찾아 불로장생을 실현해 보려고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역력한 자취들이 고사에 나타나 있다. 그 좋은 본보기로 진시황과 스탈린을 들수있다. 시황은 서복을 시켜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해 오도록 동남 동여 삼천명과 금은보화를10척의 배에 실어 보지도못한 삼신산으로 떠나 보냈다. 웬일인지 서복의 소식은 영영 끊기고 말았다고 한다. 시황은 다시 허생이란 방사에 선술을 배워오도록 명하였다. 과연 허생은 선술을 배워와서 시황께 알려드렸다. 그러나 그는 즉위 37년되던해 49세라는 짧은 나이로 숨을거두었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스탈린은 과학적인 방법을 택한 셈이다. 스탈린은 자기와 체질이 비슷한 동갑내기들을 선발하여 시험대에 오르게 한뒤 이가운데서 A·C·S라는 비약을 발명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생을 위해 온갖 수단과 지혜를 동원해 왔으나 결국은 불로장생이란것은 하나의 욕망일 뿐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사람들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장수의 비결을 식생활 밖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약보는 식보만못하다」라고 하는 진리는부슨 뜻일까. 동양속담에 「약을 파는 자는 양안이고, 약을 쓰는 자는 일안이며 약을 먹는자는무안이다」라는 말을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祝 發展

⊙경기도 지부

여주군 사무소장 이 웅 황 (본부이사)
포천군 〃 이 인 기
이천군 〃 김 성 배
평택시 〃 이 종 운
양평군 〃 송 만 용
안양시 〃 이 봉 선
연천군 〃 박 헌 주
화성군 〃 홍 사 광
남양주군 〃 박 성 교
동두천시 〃 황 정 근
가평군 〃 조 종 현
성남시 〃 김 상 원
평택군 〃 김 성 오
파주군 〃 이 재 달
부천시 〃 김 정 수
경기도 공판장 최 병 목
가평군 〃 김 현 목
이천군 〃 최 윤 식
안양시 〃 김 용 의

1990년 2월 20일